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2015년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발행인 : 한 상 완  
편집주간 : 김 동 열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2015년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                         |   |
|-------------------------|---|
| Executive Summary ..... | i |
| 1. 조사 개요 .....          | 1 |
| 2. 조사 결과 .....          | 2 |
| 3. 시사점 .....            | 9 |

## &lt; 요약 &gt;

## ■ 2015년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개요) 2015년 남북관계 현안과 향후 과제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4월 3~13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69명에 대해 실시했다.

(2015년 북한체제 평가) 전문가들 10명 중 8명(85.5%)은 김정일 사망 3년 탈상을 마치고 집권 4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새롭게 정권을 이양받은 후 제기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 10명 중 7명(75.3%)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이 북한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북한의 공장, 기업,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는 5.30 조치,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지정 등 지난 해 이루어진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가 국내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들 10명 중 7명(71.0%)은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10명 중 3명(36.2%)은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 10명 중 9명(98.5%)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문가 10명 중 9명(92.7%)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10명 중 6명(61.2%)은 올 하반기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2015년 남북경협 현안) 전문가들 10명 중 6명(62.3%)은 향후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과제는 '5.24 조치 해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10명 중 9명(97.1%)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들 10명 중 8명(87.0%)은 개성공단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15년 동북아 정세 전망) 전문가들 10명 중 6명(62.3%)은 6자회담이 현 정부 임기 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문가 10명 중 8명(81.1%)은 북러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 10명 중 4명(40.6%)은 북중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북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11.9%,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6.0%에 불과하였다.

(시사점) 2015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과를 도출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2015년 북러관계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만큼, 북중러 다자간 협력 확대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 조사 개요

### ○ 2015년 남북관계 현안과 향후 과제 등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시기 : 2015년 4월 3일 ~ 4월 13일 (11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69명
- 조사 내용 : 2015년 북한체제 평가, 남북관계 전망, 남북경협 현안, 동북아 정세 전망 등

#### <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① 2015년 북한체제 평가   | - 체제 안정성<br>- 경제정책 평가  |
| ② 2015년 남북관계 전망   | - 남북관계 개선 시기와 필요성<br>- 남북정상회담 필요성과 시기  |
| ③ 2015년 남북경협 현안   | - 남북경협 우선 추진 과제<br>-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br>- 개성공단 사업 추진 방향                                     |
| ④ 2015년 동북아 정세 전망 | - 6자회담 재개 전망<br>- 2015년 북러관계 전망<br>- 2015년 북중관계 전망<br>- 2015년 북일관계 전망<br>- 2015년 북러관계 전망 |

## 2. 조사 결과

### ① 2015년 북한체제 평가

○ (체제 안정성) 전문가들 10명 중 8명(85.5%)은 안정적이라고 응답, 김정일 사망 3년 탈상을 마치고 집권 4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전문가들은 김정은 집권 4년차의 북한에 대해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새롭게 정권을 이양받은 후 제기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평가

#### < 김정은 체제 북한 평가 >

| 구분    | 다소 안정되었다 | 매우 안정되었다 | 다소 불안정하다 | 매우 불안정하다 |
|-------|----------|----------|----------|----------|
| 응답 비중 | 71.0%    | 14.5%    | 10.1%    | 4.3%     |

○ (경제정책 평가) 전문가들 10명 중 7명(75.3%)은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가 북한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 북한은 지난 해 공장, 기업,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는 5.30 조치를 발표하고,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는 등의 개혁·개방 조치를 단행, 전문가들이 이러한 경제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최근 경제정책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

| 구분    |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
| 응답 비중 | 71.0%           | 24.6%           | 4.3%            |

② 2015년 남북관계 전망

○ (남북관계 개선 시기) 상당수의 전문가(71.0%)들은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전문가들 10명중 3~4명(36.2%)은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전문가들 일부는 '독수리 훈련 종료(4.24) 이후(18.8%)'와 '6.15 15주년 계기(15.9%)로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올해 안에는 힘들 것(29.0%)'이라는 지적도 제기

< 남북관계 개선 시기 >

| 구분    | 8.15 광복<br>70주년 계기 | 올해 안에는<br>힘들 것 | 독수리훈련<br>종료(4.24) 이후 | 6.15 15주년<br>계기 |
|-------|--------------------|----------------|----------------------|-----------------|
| 응답 비중 | 36.2%              | 29.0%          | 18.8%                | 15.9%           |

○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전문가들의 절대 다수(98.5%)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대부분의 전문가들(86.6%)은 남북관계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

<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

| 구분    | 매우 필요하다 | 다소 필요하다 | 별로 필요없다 | 전혀 필요없다 |
|-------|---------|---------|---------|---------|
| 응답 비중 | 86.6%   | 11.9%   | 1.5%    | 0.0%    |

○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전문가들 10명 중 9명(92.7%)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응답

- 과반수의 전문가들(50.7%)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소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도 42.0%에 이릅니다
- 다만, 소수(7.2%)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존재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

| 구분    | 매우 필요하다 | 다소 필요하다 | 별로 필요없다 | 전혀 필요없다 |
|-------|---------|---------|---------|---------|
| 응답 비중 | 50.7%   | 42.0%   | 5.8%    | 1.4%    |

○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61.2%)은 올 하반기에는 개최해야 한다고 응답

- 일부는 내년 상반기(10.4%)에 개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당장(9.0%), 올 상반기(9.0%), 내후년(9.0%)에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과 내년 하반기(1.5%)에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

| 구분    | 올 하반기 | 내년 상반기 | 당장   | 올 상반기 | 내후년  | 내년 하반기 |
|-------|-------|--------|------|-------|------|--------|
| 응답 비중 | 61.2% | 10.4%  | 9.0% | 9.0%  | 9.0% | 1.5%   |



③ 2015년 남북경협 현안

○ (남북경협 우선 추진 과제) 전문가들 10명 중 6명(62.3%)은 향후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과제를 '5.24 조치 해제'라 응답

- 일부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회담 제의(14.5%)', '개성공단 사업 발전적 확대 추진(10.1%)', 고위급 회담 제의 등 '기타(7.3%)', '남북중·남북러 등 다자협력 추진(5.8%)'을 우선 추진 과제로 지적

< 남북경협 우선 추진 과제 >

| 구분    | 5.24 조치 해제 |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회담 제의 | 개성공단 사업 발전적 확대 추진 | 기타 (고위급 회담 제의 등) | 남북중·남북러 등 다자협력 추진 |
|-------|------------|--------------------|-------------------|------------------|-------------------|
| 응답 비중 | 62.3%      | 14.5%              | 10.1%             | 7.3%             | 5.8%              |

○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 전문가들 10명 중 9명(97.1%)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

- 전문가 과반수 이상은 '매우 필요하다(58.0%)'고 응답하였으며, 상당수가 '다소 필요하다(39.1%)'고 응답
- 다만, '별로 필요없다(1.4%)'와 '전혀 필요없다(1.4%)'는 의견도 존재

<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 >

| 구분    | 매우 필요하다 | 다소 필요하다 | 별로 필요없다 | 전혀 필요없다 |
|-------|---------|---------|---------|---------|
| 응답 비중 | 58.0%   | 39.1%   | 1.4%    | 1.4%    |

○ (개성공단 사업 추진 방향) 전문가들 10명 중 8~9명(87.0%)은 개성공단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

- 개성공단 중단(2013. 4) 이전 결과와 비교해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소폭 증가했으며,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음

< 개성공단 사업 추진 방향 >

| 구분             |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점차 축소해야 한다 |
|----------------|-------------|---------------|------------|
| 응답 비중 ('12.11) | 84.6%       | 12.5%         | 2.9%       |
| 응답 비중 ('14.12) | 87.0%       | 13.0%         | 0.0%       |

④ 2015년 동북아 정세 전망

○ (6자회담 재개 전망) 전문가들 10명 중 6명(62.3%)은 6자회담이 현 정부 임기 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올 하반기(27.5%)', '내년 상반기(24.6%)' 에는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6자회담 재개 전망 >

| 구분    | 올 하반기 | 내년 상반기 | 내년 하반기 | 올 상반기 | 현 정부 임기 내 불가능 |
|-------|-------|--------|--------|-------|---------------|
| 응답 비중 | 27.5% | 24.6%  | 8.7%   | 1.4%  | 37.7%         |

○ (2015년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 총괄) 전문가 10명중 8명은 북러관계를 긍정적(81.1%)으로 전망하였으며, 10명중 4명은 북중관계를 긍정적(40.6%)으로 전망

- 북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11.9% 수준이었으며,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6.0%에 불과

< 2015년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 >

| 구분       |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응답<br>비중 | 북러 | 13.0%  | <b>68.1%</b> | 17.4%        | 1.4%         | 0.0%   |
|          | 북중 | 0.0%   | <b>40.6%</b> | <b>40.6%</b> | 18.8%        | 0.0%   |
|          | 북일 | 0.0%   | 11.9%        | <b>43.3%</b> | 41.8%        | 3.0%   |
|          | 북미 | 0.0%   | 6.0%         | 37.3%        | <b>50.7%</b> | 6.0%   |

○ (2015년 북러관계 전망) 전문가들 10명 중 8명(81.1%)은 2015년 북러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2015년 북러관계를 '긍정적(68.1%)' 또는 '매우 긍정적(13.0%)'으로 전망,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1.4%에 불과

○ (2015년 북중관계 전망) 전문가들 10명 중 4명(40.6%)은 2015년 북중관계를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2015년 북중관계를 '긍정적(40.6%)' 또는 '보통(40.6%)'으로 전망하였으며, 18.8%는 부정적으로 전망

○ (2015년 북일관계 전망) 전문가들 10명 가운데 4명(44.8%)은 2015년 북일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2015년 북일관계를 '부정적(41.8%)' 또는 '매우 부정적(3.0%)'으로 전망,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43.3%)'으로 전망한 전문가도 10명 가운데 4명 수준이었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11.9%에 수준

○ (2015년 북미관계 전망) 전문가들 10명 중 5~6명(56.7%)은 2015년 북미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2015년 북미관계를 '부정적(50.7%)' 또는 '매우 부정적(6.0%)'으로 전망하였으며,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은 6.0% 수준에 불과

### 3. 시사점

- 첫째, 2015년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
  -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2015년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도 지적하면서 올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
-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과를 도출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분위기 조성 필요
  -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방향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북한이 관련 경제정책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 분위기를 조성
    - 이를 위해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금강산·개성 등 남북관광 사업 재개와 함께,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적 확대를 추진
    -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셋째, 2015년 북러관계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만큼, 북중러 다자간 협력 확대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력을 강화
  - 북러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주변 정세를 적극 활용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력을 강화
    - 접경지역 중심의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유라시아의 철도 연결 사업을 적극 추진
    - 이 과정에서 남북 접경지역(경원선, 동해북부선 등) 철도 연결 → 북한 내 철도 개보수 → 북한 철도 현대화(복선화·고속화) 추진을 검토

경제연구본부 이해정 연구위원 (02-2072-6226, hjlee@hri.co.kr)

최성근 연구위원 (02-2072-6223, csk01@hri.co.kr)